

1798년 광주객사 앞 과거시험... 正祖, 호남 유생 53명 발탁

〈옛 무등극장 일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8일~11일

‘광주의 과거시험’ 기획전시

유물 80여점 200년 전 상황 되살려

약 200년 전 광주에서 열린 과거시험은 어땠을까? 조선시대 정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798년 광주에서 호남 지역 유생들을 대상으로 과거시험을 치르도록 지시하며 직접 문제를 출제한다. 이에 같은해 4월 광주객사인 광산관(관리들의 숙소·옛 무등극장 일대) 일원에서는 과거시험이 열린다.

영화 ‘사도’나 ‘역린’에서 다룬 것 처럼 봉당 정지의 폐단을 똑똑히 목격할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정당에 속하지 않은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 봉당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호남 인재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조는 전라도 유생들을 대상으로 과거시험을 치뤘 53명을 최종 선발한다.그들은 사실상 문과급제와 다른 없는 영예를 차지하는 등 각종 특전을 받게 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김원석)이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1798년 광주의 과거시험’ 기획전시회를 연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꾸며진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 80여점의 유물을 통해 2백년 전 광주에서 열린 과거 시험을 되살린다.

제1부 ‘과거시험’에서는 조선시대 수험생들의 일상과 시험 진행과정을 소개한다. 당시 과거시험이라면 잠시라도 손에서 놓지 않았을



‘어고방목’ 광산관에서 실시한 과거시험 당시 합격자 53명의 명단을 수록한 문서로 그 길이가 28m에 이른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제공〉

수험서들, 하루 300자씩 암송해도 4년 반이 걸리는 사서오경(四書五經)의 암송을 위해 사용하던 ‘죽점경서통’ 등이 소개된다. 또한 시험 답안지인 시권 읽는 법, 매우 엄격한 절차로 진행된 채점과정도 풍부한 관련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제2부 ‘1798년 광주’에서는 광주에서 실시한 과거시험의 전모를 소상하게 담는다. 당시 장원급제를 한 고정봉(1743~1822)의 답안지를 통해 시험문제의 출제유형과 답안내용을 소개한다. 또 과거 시험을 통과한 53명과 합격은 못했지만 실력이 눈에 띈 16명의 명단인 ‘어고방목’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길이가 28m에 달하는 어고방목은 합격자의 이름과 가문, 과목별 석차, 개인별 누계점수 등이 담긴 중함성적표다.

제3부 ‘벼슬길과 삶’에서는 그림을 통해 시험에 합격, 벼슬길에 오른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798년 과거시험 합격자들의 뒷에 기본 아니라 1567년 당시 광주목사 최응룡이 문과급제 동기생들과 모여 총장로2가 옛 광주우체국 자리에 있던 ‘희경루’란 누각에 올라



‘희경루 방회도’. 1567년 광주목사 최응룡이 문과급제 동기생들을 불러 희경루(현 광주우체국 일대)에서 개최한 잔치를 묘사한 그림.

개최한 연회의 모습을 담은 ‘희경루 방회도’, 제4부 ‘쇠락해가는 과거제’에서는 대리응시, 위장전입, 임시전문학원, 유명 임시감사 등 직후 받은 길이 2m의 어사화도 전시된다.

제4부 ‘쇠락해가는 과거제’에서는 대리응시, 위장전입, 임시전문학원, 유명 임시감사 등 오늘날 임시 풍속이 조선후기에도 성행했던

풍조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평생 과거준비에 몰두했음에도 끝내 조선왕조에서 문과급제자 명단에 오르지 못한 어느 수험생 부부의 설움, 신분의 장벽에 막혀 과거응시자격을 얻지 못했으나 스스로 사회적 성취를 위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등 과거제의 그늘에 묻혀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준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개막에 맞춰 박물관은 전시도록 외에 1798년 시험에서 장원급제란 고정봉의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120점을 소개하는 자료집 ‘광주 이상동 장흥고시 고문서’도 함께 발간했다.

시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출신 가문이나 혈통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성취를 평가하는 전통을 만든 데에는 과거제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전시가 광주의 감춰진 역사를 알고 싶어 하는 일반시민들에게도 풍부한 지적 탐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536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어사화’

별바라기의 일기장 ... 우주는 안녕한가요?

광주·전남 천문동호회 ‘별사랑’

6일~30일 치평동 휴양 갤러리

별을 좋아하는 광주·전남지역 동호인들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엿볼 수 있는 사진전을 마련한다.

광주·전남 천문동호회 ‘별사랑’(회장 성화중)은 6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LH광주·전남 지역본부 1층 휴양 갤러리(토, 일 휴관)에서 천체사진전 ‘우주는 안녕한가요?’를 개최한다.

‘별바라기의 일기장’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유희근, 김경중, 이병섭·기원 부자(父子), 신성수, 김창배 씨 등 회원 10여 명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틈틈이 촬영한 다양한 천체사진 25점을 선보인다.

회원들은 DSLR과 CCD 카메라를 이용해 ‘뉴질랜드 남천(南天) 은하수와 마젤란 성운’을 비롯해 M31(안드로메다 은



뉴질랜드 남천 은하수와 마젤란성운(신성수 작)

하), M101(바람개비 은하), M51(부자 은하), 로제타(장미)성운 등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다채로운 별세계의 모습을 담았다.

특히 회원 가운데 이병섭(48·동부대우 전자 구매부장)·기원(18·진흥고 2년) 부자가 눈길을 끈다.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이들은 여름 및 겨울 대표 별자리인 백조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Ha필터를 이용해 촬영한 광시야(廣視野) 사진을 선보인다. 아들 기원 군은 한국천문연구원 주최의 ‘천체사진 공모전’에서 2013년 청소년부 동상(한겨울 박명 은하수), 2014년 청소년부 동상(백조자리), 올해 지구와 우주 부문 금상(오리온 Wide Field)을 수상한 실력파다.

김창배 씨 역시 올해 같은 공모전에서 심우주(Deep Sky) 부문 금상(리브조이혜성의 질주)을 수상한 바 있다. 문의 062-360-339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5 전남대 음악교육학과 정기 음악축제

8일 예술대 3호관 예향홀

전남대 사범대 음악교육학과(학과장 오지향)는 매회 전 학생들이 참여하는 음악 축제를 열고 있다. 몇년 전부터는 정통 클래식 공연과 함께 뮤지컬 갈라 무대를 함께 마련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15 전남대 음악교육학과 정기 음악축제가 오는 8일 오후 7시 전남대 예술대학 3호관 예향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내년 6월 정년퇴임하는 정애련 교수의 고별 연주가 함께 하는 무대다. 정 교수는 32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첫 무대는 국악 기악 합주 ‘남도 굿거리’가 장식한다. 이어 흥영일씨 지휘로 ‘하늘 빛 너의 향기’, ‘Dear friend and gentle hearts’를 선보이며 권다은·최정혜씨의 피아노 듀오가 공연된다. 소프라노 정애련 교수는 고혜경(피아노), 박수현(플루트), 김수환(오보에)씨의 반주에 맞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를 들려준다.



정애련 교수

지금까지 ‘그리스’, ‘빨래’ 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학생들은 올 공연에서는 창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연출 최승일)를 무대에 올린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톨릭 재단 병원 602호 환자들은 연말 다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다. 하지만 촬영 당일 병원 기부금을 받는데 막중한 책임을 진 반신불수 환자 최병호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를 계기로 환자들의 사연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지금 가요’ 버림받은 이들의 노래, ‘병호와 마리아의 싸움’, ‘마리의 마음’ 등의 뮤지컬 넘버가 소개된다. 신성영·박다정·정유정·임설희·최정혜·황주연 등이 출연한다. 전석 초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프랑스가구 런칭



SINCE 1990

홍스케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